

# ‘국어기본법’ 8년... 행정용어 외래어 남발 여전

### 59개 공공기관 중 98% 외래어 남용·어법 오류

### 오늘 한글날... 광주시·전남도 “국어사용 확대할 것”

“매니페스토→참공약”, ‘SNS→누리소통망’, ‘음부즈맨→민원도움어’ 등을 행정용어로 사용시 한글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제1회 ‘행정용어 순화위원회’를 열어 외국·외래어로 쓰이고 있는 행정용어 30개를 한글로 바꾸도록 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광주시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여전히 ‘매니페스토 공약 추진’이라는 공간이 개설돼 있고, 올 4월에는 광주시 인권음부즈맨을 선발·임명하고 사무실까지 열었다.

시는 특히 지난 9월에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인권침해 등에 대해 음부즈맨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도 넣었다. 음부즈맨을 민원도움어로 쓰도록 해놓고 스스로 이를 어기고 있는 것이다.

23년 만에 한글날이 공휴일로 제정되는 등 한글 지키기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광주시 등 행정기관의 행정용어 한글 순화 정책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한 국어기본법에는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 규범에 맞춰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국립국어원도 2009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에 ‘공문서 바로쓰기’ 지침서를 배포하

고 있지만, 행정현장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공공기관이 국어기본법을 위반해도 제재 수단이나 처벌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국립국어원의 ‘2013년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자료를 보면 광주시 등 59개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보도자료 587건 중 어문규정을 완벽하게 지켜 만점(700점)을 받은 문건은 12건에 그쳤다. 나머지 98%는 맞춤법 오류를 비롯한 외래어·외국어 남용, 어법 오류 등의 지적을 받았다.

특히 576건의 문서에선 문서당 10개꼴로 5432개의 어문규정 위반이 발견되기도 했다.

외부에 공개된 공문서인 보도자료가 이 정도 수준이라면 내부적인 행정문서의 국어 파괴 현상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렇다고 광주시나 정부가 행정용어 순화 정책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행정용어순화위원회를 구성한 광주시는 올 9월 행정문서의 한글 표기 오류를 바로잡아주는 행정용어 순화 변환시스템을 도입, 내부 인터넷망에 배포하는 등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광복 이후 1960년대까지 국·한문 혼용기에 우리말 도로찾기 운동을 시작으로, 한글전용법 제정, 공문서 작성 한글만 사용 등 행정용어에서 일체의 잔재를

### 연도별 행정용어 순화 변천사

1946년	군정청 편수국 ‘우리말 도로찾기 운동’
1948년	한글 전용법 제정
1968년	한글 전용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 제정 / 공문서 작성 한글만 사용
1976년	대통령령 “국어 정책 운동 벌여라” 지시 / 경찰, 관공서 고속도로의 외국어 간판 단속
1981~1984년	행정용어 순화 편람 1~4권 발간
1988년	한글 맞춤법 제정
1992년	행정용어 바르게 쓰기 국무총리 훈령 제정
1996년	쉬운 행정용어 모음집 발간
2000년	국무총리 훈령폐지 / 행정용어 순화작업 각 부처별로 추진
2005년	국어기본법 제정- 공공기관 등 공문서 어문규범에 따라 한글로 작성(14조)
2006년	행정용어 순화실태 종합 진단, 민관 공동추진
2009년	국립국어원 공공 언어 추진단 설립
2012년	정부 결재시스템 행정용어 자동 정정 프로그램 배포

털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1970년대부터 1990년대는 정부 주도의 강력한 행정용어 순화기로 꼽힌다.

1979년 어문규범 개정안을 시작으로, 1981~1984년 4차례에 걸쳐 행정용어 순화편람이 만들어 지기도 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행정용어 순화가 정착됐다’는 이유로 한글 전용에 관한 총리 훈령이 폐지되는 등 정부 주도의 행정용어 순화 정책은 사라졌다. 이후 국제교류 확대 등으로 영어 등 외래어 사용이 급속히 늘면서 행정용어는 한글과 외국어가 뒤죽박죽 엉키는 ‘제2의 한글수난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난 2009년 한글날을 앞두고 “각종 행정용어에 국적 불명의 외국어가 난무하는 것은 문화적 종속주의 산물로 전남도가 앞장서 모든 용어를 한글로 바꾸는 등 문화개편안을 벌여나가자”며 “대부분의 명칭 및 용어는 영어도 아니

고 불어도 아니며 한글은 더더욱 아니어서 도대체 우리 국민도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외국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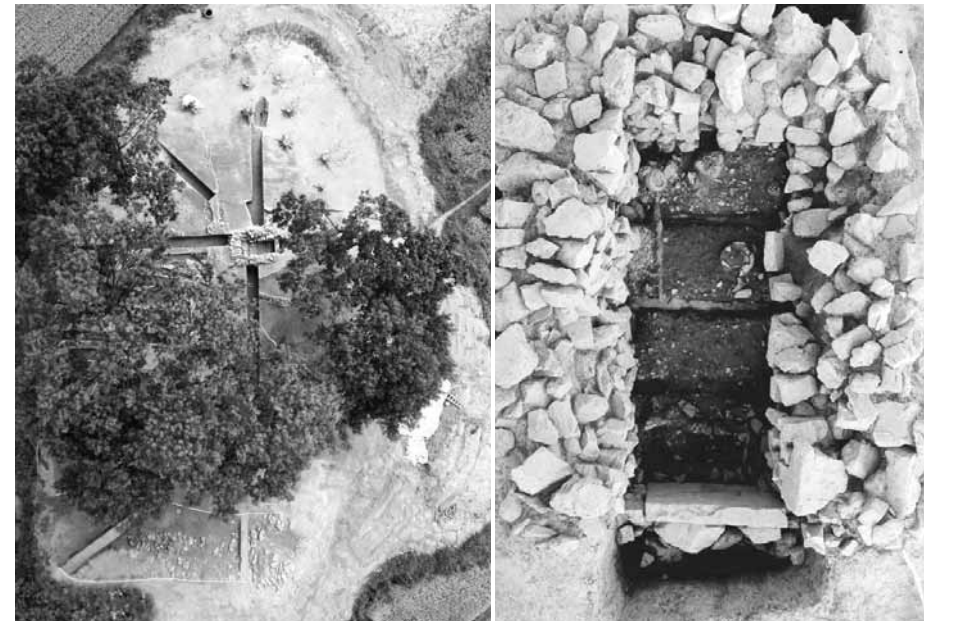
전남도는 이에 따라 ▲행정용어 순화 전담반 상시 운영 ▲행정용어순화 자문위원회 운영 ▲알기 쉬운 행정용어집 발간 배부 ▲공무원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결혼 이주 여성 한국어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광주시와 마찬가지로 각종 행정용어에서 외래어 남발 현상은 여전하다.

광주시·전남도 관계자는 “행정용어순화정책의 성공은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개개인의 의지에 달려 있기도 하다”면서 “국어사용 풍토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함께 캠페인 등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준영기자 lucky@kwangju.co.kr

## 국내 가장 오래된 전방후원분 나주서 발견

### 5세기 중반... 쇠갈·쇠창·쇠도끼·살포 출토



5세기 중반 축조된 전방후원분으로 밝혀진 나주 가흥리 신흥고분 전경(왼쪽)과 횡구식석곽 모습. (대한문화재연구원 제공)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 무덤 양식이 나주에서 발견됐다. 전방후원분은 원형 봉분 전면에 사각형 단을 설치하는 무덤 양식으로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13기가 확인됐다.

매장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인 대한문화재연구원(원장 이영철)은 나주 가흥리 신흥고분을 발굴조사한 결과 이 무덤이 현재까지 확인한 전방후원분 중 가장 오래된 5세기에 축조됐다고 8일 밝혔다. 현재까지 발견된 전방후원분은 대부분 축조시기가 6세기 초로 평가된다.

대한문화재연구원은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새로운 전방후원분의 존재를 확인함과 동시에 기존 학설보다 50년 정도 빠른 5세기 중엽에 축조된 새로운 무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고분은 봉분 길이가 30m에 이르는 대형분으로 구름을 깎아낸 뒤 쌓아올린 것

로 확인됐으며, 나무 기둥으로 골조를 세운 후 돌을 이용해 만든 무덤방에 시신을 안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덤방은 일부 벽을 열어 외부와 통할 수 있도록 만드는 횡구식석곽(橫口式石槨) 구조로 철제대도, 철모 등을 비롯해 조형토기 등이 출토됐다. 또 고분도랑에서는 원통형토기를 비롯해 가야계 기대(그릇받침), 장란형토기 등이 발견됐고, 고분 주변에서는 초기 삼국시대 주거지 5동을 비롯해 5세기 후반기에 축조한 옹관묘(독무덤) 2기가 확인됐다.

대한문화재연구원은 “영산강 유역 고대사회의 중심부로 알려진 나주 북암리 일원에서 5세기 중엽에 전방후원분이 만들어진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지금까지 통설화 된 이 지역 고대사회 연구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한글교육 외국 학교수 2년새 274교 늘어

### 학생수는 3만6942명 증가... 일본 가장 많아

한글을 가르치는 외국의 학교 수가 최근 2년새 274교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민주당 의원이 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글을 제2외국어 또는 외국어로 가르치는 나라와 학교는 2010년 21개국 525개교에서 2011년 22개국 695개교, 지난해 23개국 799개교로, 해마다 증가했다.

한글을 배우는 학생 수 역시 2010년 3만 9435명, 2011년 6만4611명, 지난해 7만6377명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2년 사이 한글 교육 학교 수는 274개

교(52%), 학생 수는 3만6942명(94%) 늘었다.

지난해 기준 한글을 가르치는 학교 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전체 학교 수의 38%인 303개교가 일본에 있었다. 이어 미국(110개교), 태국(81개교), 대만(48개교), 호주(47개교) 순이었다.

학생 수는 태국이 가장 많은 2만3256명으로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의 30%를 차지했다. 일본(1만2075명), 미국(9478명), 우즈베키스탄(8305명)이 뒤를 이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주김치 8년 만에 첫 일본 수출

### ‘김치光’ 27만 달러 계약... 12월부터 본격 공급

광주김치가 8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 수출된다.

광주시는 8일 광주김치타운에서 ㈜광주명품김치 김장에 대표와 유통회사인 ㈜유니온커뮤니티 신요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명품김치 브랜드인 ‘김치光’ 일본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수출계약 물량은 배추김치 등 6개 품목 40여t(27만 달러 상당)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본격적인 김치 수출은 오는 12월부터 시작된다. 내년 4월까지 5회에 걸쳐 ㈜유니온커뮤니티를 통해 일본 카타

롱 하우스(Catalog House)사에 공급된다.

광주김치가 일본에 수출되는 것은 지난 2005년 ‘기생충 김치 파동’으로 일본의 수입 규제가 강화된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앞서 광주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은 지난달 10일 뉴욕 맨하탄에서 열리는 고급농식품박람회 참가해 광주김치 1만4000달러 상당을 수출기로 했다.

남택송 광주시 식품산업팀장은 “저염식 건강김치 등 세계 각국 현지인의 입맛에 맞는 김치를 발굴해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 규정위반 전남 농공단지 국비지원 보류

### 감사원, 고흥 동강2단지·함평 명암 등 4곳

고흥 동강농공단지 등 전남 일부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규정을 위반해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감사원은 “고흥 동강2단지, 함평 명암, 무안 동탄, 영암 특화단지 등 4곳이 국비 지원 요건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무분별한 농공단지 조성을 규제하기 위해 지난 2011년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신청지역의 기존 단지 미분양률 5% 초과, 휴폐업률 10% 이상, 분양대상 면적 90% 입주 수요 확인이 있을 때만 지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고흥 동강2단지 등 4곳은 50%를

미달하는 분양률에다 입주 수요 비율 기준치 미달 등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또 영암 농공단지는 입주수요 예상 업체 수의 절반 이상이 농림어업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감사원은 단지 조성비 지원 기준에 맞도록 보완 때까지 국비 지원을 보류하거나 취소, 단지 규모 조정 등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애초 완공(2016년 말) 시기보다 최소 1~2년 늦춰질 우려가 크다.

/\*오영록기자 kroh@kwangju.co.kr

## 현장직 사원모집

전문인력관리회사인 당사에서는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근무가능한 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급여 : 1,800,000원
- 상여금 300%분할지급 (3개월 후부터)
- 6개월 이상 근무시 정규직 가능, 상여금 400%
- 근무시간 08:30~17:30 + 3시간 연장, 토요일 특근
- 여자사원은 35세 이하(경력자 40세미만 까지)
- 남자사원은 35세 미만으로 군필자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주민등록등본 각1부
- 근무지 : 하남 7번도로, (주)금호전기

초보가능, 즉시근무, 장기근무가능, 직업환경좋음.

**주식회사 엠지**  
TEL. 062-681-5588 HP. 010-2580-3744 FAX. 062-681-5586

\*버스운행 : 두암동 → 문충동 → 오치 → 일곡 → 양산동 → 청단지구 → 신성지구 → 신가 → 운남지구 → 월곡동

## 동양의학수강생모집

### Self 건강관리를 위한 힐링강좌!

**동양의학을 왜 배워야 하는가?**

- 동양의학적 치료원리를 이해하여 자연치유력을 회복
- 서양의학과 병행치료의 한계를 극복
- 효과적인 국내외의 선교 및 포교활동
- 국내 의료개방 대비와 해외환의사 진출
- 건강 및 대체의학 관련 사업의 소득증대

\* 침구학 기본과정(4개월-주1회3시간)  
주요과목: 침구학개론(심·몸기초,경락경혈,침구치료),한방기초

\* 동양의학 전문과정(1년~3년)  
주요과목: 중의기초이론, 진단학, 본초학, 방약학, 경혈학 등

**공개강좌** 광주35기) 10월 11일(금) 14시

위치: 쌍촌역 2번출구에서 운전역방향 180m 중앙평생교육원내 2층

### 산동중의대 중의학 연수생 모집

**3년 필업(졸업) 과정**

- 교과내용: 침구학, 침구치료학, 추나학, 해부생리학, 본초방제학, 사암오행, 동시기혈 등
- 중국자격증, 면허 취득가능, 중의대 석박사학위 과정 진학가능
- 해외 한의대 편입 및 미국한의사시험응시가능
- 해외 한의사 진출(세계각국에서 한의원 취업 및 창업가능)

\* 본 학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since 1985. 침구학 전문교육기관

**CH 아카데미**  
www.wch.ac.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 편백경침검용 발목펌프

**발목펌프는 열역순환장으로 인한 고열압, 당뇨, 비만 등 각종 성인병등을 완전 해결 시켜줍니다.**

직경10cm 길이 30cm 높이 7.5cm 편백나무 반원에 경침과 발목펌프 운동을 겸용할 수 있고 소음 진동방지장치와 운동회수를 자동으로 알리는 음성카운터가 내장되어 있어 운동하기 편리하며 취침 시는 경침으로 이용하며 평생 동안 건강을 지켜주는 운동효과가 탁월한 편백경침검용 발목펌프는 당신의 건강을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특허등록 제30-0630153 발목펌프★

- ▶ 편백 경침 검용 [음성카운터](아파트용) 60,000원
- ▶ 편백 경침 검용 [음성카운터](주력용) 50,000원
- ▶ 편백 경침 검용 발목펌프(아파트용) 40,000원
- ▶ 편백 경침 검용 발목펌프(주력용) 30,000원

**제일건강** 문의전화: 010-7510-2000  
광주 광역시 남구 진월동 258-1

##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인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클리코엔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 식후 혈당상승 억제!

- 01 식후혈당상승억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 0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h NAVER** 백세생활건강 을 검색하세요  
전화 1899-3975 H.P 010-3598-7080